

韓半島와 遼東地域과의 靑銅器文化 交流

이 청 규 (영남대학교)

○ 【기조강연】

韓半島와 遼東地域과의 靑銅器文化 交流

李 淸 圭

1. 머리말

靑銅器時代에 中國 遼寧地域과 韓半島 文化의 關係 혹은 交流에 대해서 대체로 두 가지 觀點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첫째는 兩 地域의 文化가 同一 文化圈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相互 緊密한 關係라는 觀點이다. 둘째는 中國 東北地域에서 韓半島로 擴散되는 文化要素가 많아 前者가 中心이고 後者가 周邊 또는 中原地域을 염두에 두고 각각 1차주변과 2차주변이라는 觀點이다.

그러나 時期에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 相互 일정한 차이도 존재하며, 두 번째의 경우 相互競爭의이거나 相互對等한 水準에서 交流하는 경우도 있어 劃一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0년대에 들어와 韓半島地域에서의 發掘調査 成果가 많아지고, 中國地域에서 새로운 사실이 적지 않게 確認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同質的인 文化와 異質的인 文化, 그리고 相互差別과 相互對等의 觀點에서 均衡잡힌 接近이 필요하다.

또한 兩 地域 文化의 關係를 설명함에 설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設定되어야 한다. 우선 地理的으로 中國東北地域 全體와 韓半島 全體의 上位地域 水準의 文化를 설명하는 것인지, 遼寧地域 중 遼東地域, 韓半島의 西北韓 地域 등 兩 地域의 下位地域 사이의 關係를 설명하는 것인지 區分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하는 考古學的 文化가 全體 遺蹟遺物複合體인지 무덤등의 遺構資料인지, 아니면 土器 혹은 靑銅器 등 遺物資料인지에 따라서 설명내용이 다를 수 있다. 무덤, 土器, 靑銅器 각각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兩 地域의 關係 혹은 交流가 密接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最終段階에 무엇보다 接近이 어렵지만 그렇게 整理된 相互 關係와 交流의 歷史的, 文化的 意味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研究成果가 많이 蓄積된 韓半島와 日本의 關係가 참고가 된다. 日本과의 關係에서 中國과의 그것과 달리 韓半島가 中心地이어서 相互對照가 되는 바,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論議는 생략한다.

2. 地域文化圈의 區分과 地域間의 交流

韓國考古學에서 다루는 靑銅器文化의 地理的 範圍는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를 포괄해야 한다. 이를 古朝鮮文化圈, 韓國文化圈, 東方文化圈, 濊貊文化圈, 琵琶形靑銅器文化圈, 無文土器文化圈 등 무슨 文化圈에 대응될지는 學界의 論議가 必要하다.

同 領域을 1段階 細分하여 上位地域으로 遼寧地域과 吉林地域, 그리고 韓半島地域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들 上位地域의 考古學的 文化를 總體的으로 說明한 事例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음 한 段階 더 내려가 遼寧, 吉林, 韓半島의 각 地域을 細分한 中位地域의 文化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論議가 이루어진 바 있다. 遼寧地域의 경우 遼西地域과 遼東地域, 吉林地域은 松嫩地域과 松花江 上流地域, 韓半島의 경우 北韓과 南韓地域 등으로 區分하여 論議하는 事例가 많다. 이들 中位地域의 文化가 각각 隣接한 地域과 일정한 交流를 통해 文化融合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서 考古學的으로 說明하는 事例가 많이 보인다. 이를테면 遼西地域의 경우 夏家店下層文化, 魏營子文化, 夏家店上層文化 등 각 文化別로 西南쪽에 인접한 燕山地域의 靑銅器, 土器 등의 流入事例에 대한 論議가 바로 그것이다. 遼東과 西北韓 地域間의 交流에 대해서 美松里型土器 혹은 支石墓를 근거한 論議도 이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遼西地域과 松花江流域의 白金寶文化의 交流에 대해 土器를 근거한 論議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 下位地域의 경우 우선 遼西地域에서는 遼河 內陸과 渤海灣 沿岸, 遼東地域은 遼北, 그리고 遼南地域, 그리고 韓半島의 경우 北韓과 南韓地域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下位地域 이하의 地域 細分은 考古學的 資料가 비교적 풍부하거나 地域的 特性이 뚜렷한 地域을 中心으로 가능하다. 遼東半島를 별도로 細分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事例이다.

같은 上位 혹은 中位地域내에 속하는 下位地域間의 交流에 대해서는 比較的 많은 論議가 이루어진 반면, 다른 上位 혹은 中位地域에 속하는 下位地域間의 交流는 그렇게 深度 있게 論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遼西의 內陸地域과 遼東의 遼北地域 下位地域間의 交流, 또는 遼東의 遼南地域과 韓半島 西北韓地域間의 交流가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地域間의 交流에 대하여 時期別로 說明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論議된 바로는 遼東 지역과 韓半島를 한데 묶어 編年함에 土器와 靑銅器를 標識로 한 여러 編年틀이 있다. 우선 靑銅器를 標識로 하여 先銅劍期, 琵琶形銅劍期, 細形銅劍時期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그중 琵琶形銅劍期는 前後期, 細形銅劍時期도 初前期 등으로 細分할 수 있다.

土器를 中心으로 하는 時期區分은 地域마다 조성된 土器組合群에 차이가 있어

統一된 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遼北地域에서는 馬城子-新城子類型的 土器群으로, 遼南地域에서는 雙砬子 2期-雙砬子 3期- 崗上類型的 土器群 順으로 區分하고 있다. 韓半島에서는 北韓에 大同江流域을 中心으로 한 新興洞類型 土器群, 漢江과 洛東江流域에서는 漢沙洞類型에서 可樂洞/驛三洞類型的 土器群, 南韓의 西北地域의 錦江流域에서는 松菊里類型的 土器群이 定着되고 있다.

각기 다른 中位 혹은 下位地域間에 相互對應되는 土器의 形式이나 土器群의 類型이 무엇인지 論議는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同意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上位地域間에 對應되는 土器群에 대해서는 初步的인 水準에서 接近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遼東地域에서 대체로 馬城子-雙砬子 3期 유형은 先銅劍期, 新城子-崗上 類型은 琵琶形銅劍期, 그리고 二道河子期和 尹家村期 등은 變形琵琶形 혹은 初期 細形銅劍時期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韓半島에서도 漢沙洞 類型的 土器群은 先銅劍期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可樂洞-驛三洞 類型的 土器群 段階에는 琵琶形銅劍이 普及되었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그리고 松菊里 類型的 土器段階에 後期 琵琶形銅劍, 그리고 南成里類型的 土器群은 細形銅劍時期로 理解되고 있다.

논란이 많지만 앞서 설정된 先銅劍期-琵琶形銅劍 前期-琵琶形銅劍 後期-細形銅劍時期 初前期의 각 段階別로 相互 交流와 관련된 靑銅器, 土器, 무덤에 대해서 그 대강의 輪廓을 설명하고자 한다.

3. 先銅劍期

遼東地域의 遼北에서는 新樂上層-馬城子 土器, 遼南地域에서는 雙砬子 2期和 3期 土器, 韓半島에서는 新興洞 土器, 漢沙里土器-可樂洞/驛三洞 土器 등이 流行한다. 이러한 先銅劍期の 土器群에 대해서는 적어도 2段階로 細分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論議가 試圖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同意를 얻지 못하고 있다.

韓半島와 遼東 지역의 土器群의 土器屬性 중에 突帶文과 二重口緣이 相互 공통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意見도 제시되어 있다. 이들 突帶文과 二重口緣의 屬性은 이미 遼河 서쪽의 夏家店下層文化段階의 大甸子流域에서도 確認된다. 각 地域別로 각기 다른 類型的 土器群이 確認되지만 일정한 屬性에 共通點이 있으므로 上位地域의 集團 間에 어떤 式으로 交流가 있는 것으로 推定되나 그 實像을 斷定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土器群으로서 交流關係를 구체적으로 說明하기 어려운 紀元前 2千 年期 先銅劍時期에 遼北地域에서 馬城子文化에 속하는 張家堡 遺蹟에서 靑銅고리, 圓形과 長方形 裝飾, 귀고리 등이 副葬되었다. 遼東半島의 雙砬子3期文化에 속하는 大嘴子 遺蹟에서는 銅戈와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같은 地域에서

于家村, 砣頭 무덤 遺蹟등에서 단추, 화살촉, 고리 등의 小形 銅器가 確認되었다.

韓半島와 遼東地域의 境界에 있는 鴨綠江 流域의 以北의 丹東 東口 遺蹟에서는 孔內戈, 以南의 新岩里 遺蹟에서 環頭刀子가 收拾되었다. 西北韓地域의 新興洞類型의 土器群이 출토하는 金灘里 遺蹟에서 銅鑿, 그리고 南韓地域의 晉州 大坪里 漢沙里土器類型의 土器群이 출토하는 住居址에서 靑銅裝飾이 出土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先銅劍期의 靑銅遺物을 볼 때 遼東과 韓半島地域의 交流는 一定的한 傾向이 確認되지 않는다. 遼北, 遼南, 그리고 韓半島地域의 靑銅器는 北方系로 認定되고 있지만 遼東半島에서 確認된 靑銅器는 中原界의 影響일 가능성이 높으며, 靑銅遺物이 出土되는 脈絡을 보면 定形性을 갖추어 무덤의 威勢品으로서 發見되지 않는다.

이 段階에 地域마다 각기 다른 樣式의 무덤이 造成되는 바, 遼南地域에서는 積石塚, 遼北地域에서는 洞窟墓가 등장한다. 相互 무덤이 造成되는 立地와 墓域 施設이 각기 다르지만, 개개 무덤시설구조는 石棺 혹은 石槨인 점은 공통된다. 이 時期에 遼北地域 南端과 遼南地域의 北部에 支石墓와 大石蓋墓도 등장하였을 可能性이 높지만,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다음 時期이다. 韓半島의 경우 西北韓 地域에 積石墓域에 다수의 무덤이 安置된 沈村里型 支石墓가 이 時期부터 築造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南韓地域에서는 一部 支石墓가 이 段階에 속할 可能性을 배제 못하지만, 定形性을 갖춘 무덤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 또한 다음 琵琶形銅劍時期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의 地域集團은 副葬遺物이나 무덤의 규모를 볼 때 무덤의 被葬者間에 威勢 차이가 분명하게 確認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階層化된 社會的 發前段階의 水準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理解된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社會的 成長度 構成員 間에 差別化되지 못한 共同體 社會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한 段階라 할 수 있다. 각 地域社會 내에 匠人集團이 등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技術 水準이나, 專業化 역시 미미한 水準이어서 規格化된 手工業 靑銅製品이 生産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一定的한 實力者가 主導하는 圓滑하고 그리고 體系的인 流通이 각 地域集團 내에서는 물론 地域集團 間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琵琶形銅劍 前期

遼北地域에서는 同 段階에 新城子類型의 土器群이 繁盛하였음이 確認되고 있다. 新城子類型의 土器는 馬城子類型에서 發展한 것으로 남쪽으로 가면 鳳城 東山類型으로 變形된다 하겠다. 遼南地區에서는 崗上類型 혹은 上馬石 下層類型이 있으며, 북쪽에 雙房遺蹟을 標識로 하는 雙房類型이 있어 美松里式의 단지와 二

重口緣土器 深鉢이 複合되고 있다. 韓半島에서는 이 段階에 西北韓 地域에서는 新興洞類型의 土器가 지속되고, 東南韓地域에서는 松菊里類型 土器가 發展한다.

中位地域間的 土器交流는 西北韓과 遼北地域間에 美松里式과 그 變形의 單形 土器를 통해서 確認이 되지만, 全體 土器 갖춤새는 前段階와 마찬가지로 각각 一定的인 地域的인 特色을 維持 發展시키고 있다. 따라서 遼寧地域과 韓半島間에 人口 集團 間的 移動이나 融合이 積極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기에 遼寧地域 全體에서 製作普及되는 靑銅器는 武器, 工具, 車馬具, 裝飾品, 祭器 등 多種多樣하다. 그러나 그 大部分의 器種은 遼西地域에서 集中的으로 普及된 것으로 確認된다. 夏家店上層文化의 小黑石溝, 南山根, 十二臺營子文化의 十二臺營子, 烏金塘 遺蹟의 事例가 바로 그것이다.

遼東地域에서는 遼北地域의 本溪, 遼東半島의 旅順을 中心으로 靑銅器 普及이 集中的으로 이루어지지만, 遼西地域의 그것에 多樣性和 數量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多鈕鏡과 裝飾品, 車馬具 부속 一部에 불과하다. 韓半島의 경우 더욱 그러한 바, 大部分의 出土事例는 實物이 確認되는 것은 琵琶形銅劍과 간혹 琵琶形銅矛가 있을 뿐이다. 琵琶形銅劍의 製作技術은 蜜蠟과 土范을 活用한 것이 아니라, 單純한 형태의 石製 合范을 이용한 初보적인 水準의 것이다.

精巧한 立體的 造形과 浮彫의 工藝裝飾 방법이 動員된 靑銅器가 普及되지 않았으므로, 韓半島에 製作技術의 情報나 이를 익힌 熟練된 匠人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이들 靑銅製品을 필요로 하는 指導者級 地位에 있는 階層도 분명하게 形成되지 못하였다. 需要가 있더라 하더라도 地域間的 交流시스템이 이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는 韓半島 남부에 紀元前 1千年期 後半에 들어서 각종 異形銅器와 銅鈴具, 車馬具 實物資料가 確認되는 상황과 對照的이다.

여하튼 銅劍이 韓半島 전역에 널리 普及되어 무덤의 副葬遺物로 副葬된 事例가 多數인 것은 어떠한 脈絡일까. 이미 韓半島에서 琵琶形銅劍 이전에 石製 短劍이 製作 普及되고, 무덤의 副葬遺物로 선택되어 埋納된 先銅劍文化의 慣行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石製品이지만 短劍은 실제 武器로서 적극 活用되고, 무덤에 辟邪나 威勢의 목적으로 별도로 葬送用으로 普及된다. 그러한 무덤의 副葬이라면 石劍이 1點 副葬이 大勢인 것처럼, 1點의 銅劍이면 소기의 目的이 달성되는 것이다.

또한 韓半島에서 銅劍이 무덤에 副葬되는 事例가 많지 않아, 앞선 段階의 磨製石劍 副葬을 통해 確認되는 社會的 複合 水準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印象을 준다. 中國 遼寧地域의 경우처럼 精巧하게 製作된 多種多樣的 靑銅器가 共伴되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琵琶形銅劍이 副葬된 무덤을 보면 遼北地域의 경우 新城子類型에 속하는 遼陽 二道河子, 誠信村의 石棺墓, 遼北의 남쪽 境界에 있는 雙房遺蹟의 大石蓋墓의

예가 있다. 遼南地區에서 琵琶形銅劍은 崗上의 積石墓에서 出土하고 있다. 韓半島에서는 夫餘 松菊里에서는 石棺墓, 麗水 積良洞 등에서는 蓋石式 혹은 基般式 支石墓에서 出土하고 있다. 夫餘 松菊里 石棺墓 등 一部 무덤이 별도로 마련된 立地에 위치하여 다른 構成員 무덤과 差別하고 있지만, 대부분 群集墓 중에 속하는 1期로서 무덤규모나 副葬遺物에서 銅劍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墓域을 區劃하고 있지 않지만, 多數의 支石墓에서 銅劍이 副葬된 麗水 積良洞의 群集 支石墓의 경우 群集墓 自體가 다른 支石墓群과 差別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位階化 모습은 遼南地域의 崗上 무덤遺蹟에서 볼 수 있는데, 20餘期の 石棺墓가 조성되어 있는 단일 墓域내에 中心에 대형의 蓋石墓 1期가 있고 周邊에 10餘期가 배치되어 있는 形式이다. 積石墓에 다수의 石槨墓가 조성된 事例는 같은 遼南地域에 前 段階에 등장하는데, 이를 뒤 이은 形式이라고 할 수 있겠다.

1期の 石棺墓에 多數의 人骨이 埋葬되어 있어, 周邊의 墓槨을 奴隸 殉葬墓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奴隸所有主와 奴隸와 같은 絕對等級의 社會가 아니더라도 무덤의 배치로 보아 單一墓域의 構成員 間에 位階差異는 認定할 수 있다. 그러나 副葬遺物에서 그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中心墓槨의 被葬者를 다음에 보는 鄭家窪子 墓의 被葬者와 같은 水準의 位階化社會로 認定하기 어렵다.

遼寧地域의 각종 靑銅器중 韓半島에 集中的으로 普及되는 것은 琵琶形銅劍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 그것은 製作技術 情報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製作技術의 情報가 충분히 轉移되는 것은 더 늦은 細形銅劍段階에 이르러서인 바, 同 段階의 그러한 여건이 琵琶形銅劍段階에는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二段柄式과의 共伴, 半圓形 劍把 頭飾의 磨製石劍 造型설을 근거로 韓半島 琵琶形銅劍의 韓半島 流入 年代를 紀元前 1千年 前後로 上限으로 올리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遼東地域 銅劍의 年代 上限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琵琶形銅劍 前期 段階는 아직 銅劍 자체 製作에 이르지 못하고 銅劍만 流入되는 段階와, 銅劍 自體 生産 활동에 들어간 段階로 區分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 段階에 琵琶形銅劍의 출자와 年代가 당시 社會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遼東地域과 韓半島의 無文土器 地域集團 間에 銅劍 등의 實物流通이나 製作技術의 情報 交流가 어떠한 脈絡과 方式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는 일이다. 同一 匠人 集團에 의해 同一한 장소에서 製作되어 流通된 것인지 혹은 같은 匠人이 移住 혹은 交流를 통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匠人集團에 의해 模倣해서 製作한 것인지에 대한 論議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同范의 靑銅器는 물론 同形의 靑銅器가 確認되지 않아 遼東地域에서 韓半島로의 轉移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段階에 韓

半島에서 銅劍의 製作 生産되었음은 물론이다.

5. 琵琶形銅劍 後期

무엇보다도 이 段階에 遼東地域과 韓半島 전역에 걸쳐 同一한 土器群이 分布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遼北地域에서 沈陽 鄭家窪子, 遼陽 亮甲山 遺蹟 등지에서 確認된 것처럼 粘土帶土器와 黑陶長頸壺로 대표하는 土器群이 分布한다. 遼東半島에서도 尹家村-上馬石 등지에서 이 段階에 磨研土器 長頸壺와 頭形土器가 流行한다. 또한 韓半島에서도 西南韓地域에 校成里 校成里, 安城 盤諸里 등지의 住居址 遺蹟에서 이 段階의 것으로 추정되는 粘土帶土器와 黑陶長頸壺가 確認된다. 粘土帶土器에 대해서 遼東地域의 前 段階 二重口緣土器에서 그 출자를 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 分布는 遼西地域에까지 미치고 있는 바, 그것이 遼東地域에서 과급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粘土帶土器는 琵琶形銅劍의 어느 일정 段階에서 遼西地域에서 形成되어 遼東地域을 거쳐 韓半島로 流入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앞 段階 以前에는 遼東-韓半島 各地域에서는 土器의 地域性이 뚜렷하였다. 이 段階에 粘土帶土器를 標識로 한 유사한 土器群이 遼東과 韓半島 地域에 걸쳐 分布한다는 사실은 單純한 模倣이라 소수 人口集團의 移動, 土器만의 流通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전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韓半島와 遼東半島 사이의 地域集團間의 交流 혹은 상당수의 人口가 移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 段階에 속하는 遼北地域의 沈陽 鄭家窪子 6512號 무덤에서는 靑銅劍柄과 검집이 딸린 琵琶形銅劍과 함께 다량의 화살촉, 말재갈, 銅鏡, 圓蓋形銅器, 防牌 刑銅器, 喇叭形銅器, 단추장식 등의 다양한 機種이 副葬 出土되었다. 앞선 琵琶形銅劍 前期에 遼寧地域 最大의 靑銅器副葬墓는 遼西地域의 大凌河와 遼河上流 地域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同 段階에 靑銅器 最大級の 副葬墓가 遼東地域에서도 確認되는 바, 遼北地域의 沈陽 鄭家窪子 6512號 墓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遼北地域이 靑銅器文化의 새로운 中心地로 대두된 셈이다.

遼東半島에서 이 段階에 해당하는 것으로 上馬石3號墓의 事例가 있는 바, 土壙木棺墓로서 黑陶長頸壺와 함께 琵琶形銅劍이 共伴되고 있다. 또한 韓半島에서도 西北韓의 평양 신송리 무덤에서 琵琶形銅劍, 多鈕銅鏡, 黑陶長頸壺, 東南韓의 金泉 文唐洞 木棺墓에서 銅劍과 黑陶長頸壺가 出土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整理하면 遼北地域에 最上級の 靑銅器副葬墓가 있고, 遼南地域이나 韓半島에서는 그와 懸隔한 差異가 있는 靑銅副葬墓가 分布한다. 이러한 靑銅器 갓춤새의 分布樣相을 볼 때, 遼東地域이 製作 普及의 中心이고, 韓半島는 물론 遼南地域은 周邊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中心이란 意味는 靑銅器의 需要 發生은 물론 靑銅原料와 製作을 지원하
는 能力의 主體가 등장하고, 실제 製品을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技術者가
존재하며 실제 그러한 鑛物의 流通과 靑銅製品의 生産이 이루어지는 地理的
空間을 말함이다. 이를 文獻記錄에서 볼 수 있는 <小國>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
는 바, 그러한 條件을 갖춘 地域集團이 자리한 곳이 沈陽 鄭家窪子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遼東地域에 다량의 각종 靑銅器와 새로운 樣式의 粘土帶土器, 黑陶長
頸壺를 동시에 갖춘 대형 首長墓가 등장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한 中心地와
큰 時間的인 隔差가 없이 遼南地區와 韓半島 西北韓과 東南韓 地域에도 後期型
琵琶形銅劍이 黑陶長頸壺와 같이 출현한다는 것은 銅劍 製作技術을 갖춘 匠人이
擴散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 時期와 어떠한 差異點이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遼東地域과 韓半島에 걸쳐 同一
한 形式의 粘土帶土器가 分布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그 精確한 分布範圍는 알
수 없고, 散發的으로 確認되고 있지만, 同一한 形式의 土器가 遼東에서 韓半島
에 걸쳐 分布함으로 同質的인 土器製作集團이 일정한 네트워크를 形成하였다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遼河서쪽에까지 걸쳐 있음이 水泉遺蹟
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前 段階와 달리 무덤 形式이 모두 土壙 木棺墓, 木槨墓라는 사실이 주목
된다. 이는 前段階의 무덤이 遼東과 韓半島 前地域에 걸쳐 積石墓, 石槨墓, 大石
蓋墓인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靑銅遺物이 다량 副葬된 鄭家窪子 대墓의 경우
木槨墓이지만, 上馬石, 신성동, 문당리의 무덤은 木棺墓이다. 또한 遼東半島 남
단의 이 段階의 臥龍泉 積石墓에는 石槨이나 石棺이 아닌 單純 墓壙施設을 한
무덤이 確認되는 바, 것으로 前 段階의 전형적인 石棺墓 구조와 다르다.

이러한 墓制의 變化의 動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春秋時代 末 戰
國時代 初期에 紀元前 2千年期부터 木棺, 木槨墓가 盛行하였던 燕山 以南地域
의 影響으로 遼西地域에서부터 파급되는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遼西地域에 이 段階 혹은 다소 늦은 段階의 추정되는 首長級의 무덤으로
서 東大杖子의 事例가 있는 바, 이는 積石施設이 갖추어진 무덤이다. 東大杖子
의 墓에는 琵琶形銅劍과 함께 다량의 戰國 燕나라계 靑銅器가 共伴되지만, 무덤
은 在地樣式인 바, 外來의 墓制를 在地集團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遼東
地域의 경우 그 대부분이 單純土壙의 木槨, 木棺墓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덤과 土器의 樣式에서 遼東地域에서 韓半島에 이르기까지 共通된다
는 것은 單純히 靑銅器 자체 流通네트워크 水準을 넘는 社會的 紐帶를 共有하는
集團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社會的 유대가 무엇을 意味하는 지 考古學的으로 증
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時期보다 한 段階 進전된 네트워크임은 분명하며,
이렇게 조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음 段階에 韓半島에 남단에서도 遼東地域

과 同一한 生産기반과 需要의 中心地가 形成되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粘土帶土器 集團은 南韓에서 確認된 상당수의 松菊里類型 土器群이나 늦은 段階의 驛三洞類型 土器群 遺蹟 등 기존의 在地樣式의 土器群 集團과 일정한 거리를 維持하고 있어서 相互 融合되거나 親和的인 關係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外來集團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粘土帶 土器群이 보다 擴大 分布하는 다음 時期에도 지속된다.

6. 細形銅劍 前期

中國 遼東地域과 韓半島 地域에서 앞선 段階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던 粘土帶 土器는 더욱 出土 事例가 많아지고, 密集도가 높아진다. 다음 段階에 속하는 것으로 判斷되는 本溪 上堡村 등지에서 粘土帶土器가 戰國 燕系統의 鐵器와 土器가 共伴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兩 上位地域 間에 同質的인 土器群을 통한 밀접한 交流關係가 以前 段階에 비해 더욱 強化된 것으로 推定된다.

靑銅器를 대표하는 銅劍은 兩 地域 모두 細形으로 轉換되는데, 다만 韓半島에서는 挾入部가 形成된 韓國式 細形銅劍, 遼寧省地域에는 挾入部가 없는 遼寧式 細形銅劍이 出土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劍身이 밋밋한 尹家村式 銅劍은 遼東地域에서 形成되어 韓半島 西北韓에, 그리고 韓半島의 韓國式 銅劍은 沿海州地域에 과급되는 交流 현상도 一部 確認된다.

同 段階에 遼東地域을 포함한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에는 똑같이 前段階 A式 雷紋鏡에서 벗어나 B式 太陽文 粗細文鏡으로 變換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土器와 함께 靑銅器에서 유사한 形式으로 變化하면서 下位形式에서 相互 일정한 地域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이처럼 兩 地域의 土器, 靑銅器가 連動하여 變化하는 現狀은 이미 앞선 段階에서 確認된 바 있다. 그와 다른 것은 銅劍의 下位形式에서 定形性을 띠면서 뚜렷한 地域差異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遼東과 韓半島의 銅劍에서의 地域 차이는 실상 琵琶形銅劍 이른 段階에서부터 確認된다. 그러나 그것은 個別的인 차이로써, 다수의 銅劍群에서 均一하게 發生한 形式 차이가 아니었다. 이 段階에 와서는 遼東과 韓半島의 銅劍群이 각각 地域내에서 形式의 均質化가 이루어졌는바, 그것은 각각 나름대로 安定된 靑銅器 生産체제가 갖추어졌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앞선 段階까지 遼東에 머물렀던 靑銅器갓춤새의 中心地가 遼東-韓半島間의 同一 樣式의 土器集團의 네트워크 바탕위에 이제 韓半島에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鄭家窪子에 버금가는 水準의 다양한 靑銅器갓춤새가 비로소 이 時期의 다소 늦은 段階에 등장한다. 지금까지 確認된 바로는 그것은 西北韓地域이 아니라,

大田 槐亭洞, 牙山 南成里, 禮山 東西里 무덤遺蹟의 出土事例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西南韓 地域이라는 점이다.

이들 西南韓 地域의 무덤에서 出土한 靑銅器는 銅劍과 銅鏡을 비롯하여 防牌 刑銅器, 喇叭形銅器, 圓蓋形銅器 등의 異形銅器로서 鄭家窪子遺蹟의 靑銅器에서 祖形을 구할 수 있는 예도 있다. 이들 靑銅器는 土製鎔范을 활용한 精巧한 技術의 製品으로서 높은 水準의 노하우를 갖춘 匠人에 依하지 않고서는 製作하기 어렵다.

최근에 AMS 放射性炭素年代에 대한 새로운 見解와 中國 燕下都 辛庄頭 무덤의 事例가 알려지게 되면서 細形銅劍段階의 年代가 上向調整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이에 同調한다면 大田 槐亭洞 靑銅器 土器 갖춤새의 年代는 中전에 주장한 紀元前 300년을 上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同質的인 粘土帶土器 네트워크를 통하여 燕의 東進이 있었던 紀元前 4世紀 以前에 이미 遼東地域의 高級技術者의 韓半島로의 南下를 想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遼寧地域의 鄭家窪子 段階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바, 그러한 時間的 差異는 遼寧地域의 최고 水準의 技術者의 韓半島 流入이 이 段階에 비로소 이루어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生産與件이 造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最高水準의 技術者를 確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遼東地域과 다른 政治社會 經濟的인 背景 下에 다른 方式의 需要가 있을 수 밖에 없고, 製作에 필요한 原料 등의 需給 또한 遼寧地域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遼東地域 鄭家窪子 水準의 政治社會的인 成長이 있었던 것은 紀元前 4世紀대이고 그러한 토대 위에 槐亭洞-南成里類型의 각종 靑銅器가 生産되고 首長의 무덤에 副葬된 것이다.

그러한 社會的 背景은 考古學的으로 볼 때 共同協力體制를 基盤으로 하여 權威를 확보한 支石墓 社會에서 보다 個人이나 一定集團에게 權威 혹은 勸力이 集中된 木棺墓 社會에서 비로소 가능한 바,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遼南 地域의 支石墓와 연계된 것이 아닌 遼北地域의 새로운 木棺 木槨墓社會와의 交流가 契機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靑銅器時代에 遼寧地域과 韓半島의 交流는 4段階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段階는 銅劍이 普及되기 이전으로 間歇的으로 소형 靑銅器가 遼東에서 韓半島로 流入된 것이 보이지만, 그 流通方式이 일정하지 않은 段階이다. 아직 兩地域 모두 共同體 社會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段階로서, 人口集團의 移

動過程도 확실하지 않고, 製作技術의 情報도 제대로 전하여지지 못하였다.

두 번째 段階에는 琵琶形銅劍이 流通되는바, 遼東과 韓半島에는 각 下位地域마다 土器群이 定立되어 있다. 墓制는 대부분 돌로 만든 무덤이나, 地域에 따라서 大石蓋墓, 基般式 支石墓, 積石 墓域墓, 個別 石棺墓가 造成되어 일정하지 않은데, 무덤의 構造나 副葬遺物로 볼 때 본격적으로 階層化된 社會의 特徵을 갖추기 시작한 段階이다. 그러나 遼東-韓半島地域에서 遼西地域의 小黑石溝나 南山根, 十二臺營子와 같은 水準의 有力者가 주도하는 社會로 發展하지 못한 段階이다.

세 번째는 變形 琵琶形銅劍이 普及되는 段階로서 遼東과 韓半島地域에 同一한 類型의 粘土帶土器群이 分布한다. 最高의 首長墓로서 鄭家窪子 6512號墓가 등장하는 바, 實力者가 등장한 位階化 社會는 이제 小國段階로 규정될 만한 水準에 이르게 된다. 韓半島에서도 銅劍, 銅鏡 등이 普及되어 遼東地域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만, 中心이 아닌 周邊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同 段階에 同質的인 土器集團이 遼東과 韓半島에 構築되어 다음 段階에 韓半島에 靑銅器의 中心地가 造成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된다.

네 번째는 細形銅劍이 流通하는 段階로서 前 段階에 이어 同質的인 粘土帶土器集團이 遼東과 韓半島에 擴大 分布한다. 한편으로 각 地域마다 각기 다른 下位形式의 細形銅劍이 流行하여 獨自的인 靑銅器製作基盤과 文化圈을 形成한다. 靑銅器갖춤새의 中心은 이제 韓半島 南部로 轉移되었으며, 同地域에 有力者가 出現하여 小國의 原初的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